

20년만에 재회한 천재들의 우정

최민식·한석규, 쉬리 이후 '천문'서 만나
세종-장영실의 숨겨진 이야기 그린 작품

연기 천재들이 영화 속에서 20년만에 재회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들이 맡은 배역들이 상대와 맺었던 관계를 실제 자신들의 관계에 비교했다.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지만 같은 꿈을 꾸는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이 빛났다.

최민식, 한석규, 허진호 감독은 27일 오전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감독 허진호)의 제작보고회에 참석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조선의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한석규 분)과 장영실(최민식 분)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한석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을 연기했고 최민식이 천재 과학자 장영실을 연기했다.

최민식과 한석규는 영화 '쉬리' 이후 무려 20년만에 '천문: 하늘에 묻는다'로 만났다.

최민식은 한석규와 '쉬리' 이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것에 대해 "옛그제 본 것 같다. 길다면 긴 세월, 짧다면 짧은 세월, 아니 짧진 않다. 우리 (한석규를 처음 봤을 때 '쉬리' 이전,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다.

한석규는 최민식과 함께 대학을 다녔던 시절을 언급하며 오랜 인연과 우정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선·후배 사이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연출자인 허진호 감독과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준 바 있다.

한석규는 "오늘 제작발표회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 든든하다. 편안하다. 원래 제작발표회는 불편하고 긴장감도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없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별써 30년이 됐다. 형님 본 것도 내가 83학년 때였다. 83학년이면 내가 만 19세가 안 됐을 때"라며 "형님과 나는 같은 꿈을, 연기라는 꿈을 20세 전후쯤에 해서 됐다. 같은 연기란, 그것을 갖고 서로 기다리고 있었다. 한 작

품 더 만나기를 그게 조금 오래 걸렸다. 근 시일 내에 또 같은 작품에서 뵈고 싶다"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최민식은 장영실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 "그 업적을 이루기까지 두 사람의 인간 관계가 내 관심사였다. 어느 책에도 어느 누군가 에데서도 전해 들은 바가 없다.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세종의 등에 난 욕창을 장영실이 입으로 고통을 빨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이후 다시 한 번 세종대왕 역할을 맡은 한석규는 "(세종대왕 역)이 이번이 2번째다. 연기하면서 그런 경우가 드물텐데 나 같은 경우는 기쁜 일이다. 이번에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영실과 세종은 파트너, 동반자, 두 천재라고 소개됐다. 분명 천재가 맞다. 제가 생각할 때 천재가 무엇인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천재인 것 같다. 엉뚱할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 그런데 우리 두 분은 이도라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엄청난 상상력의 소유자들이다"라고 배역을 소개했다.

최민식과 한석규는 서로의 관계를 영화 속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에 비유했다.

한석규는 "조진웅이 그런 표현을 한다. 최민식은 불, 한석규는 물이라고. 형님과 나는 많이 다르다. 성향도 체질도 다르다. 그래도 꿈은 같다. 이게 중요한 것"며 "저 두 사람, 세종대왕과 장영실 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민식이 형님은 '굿맨' "이라고 애정을 담아 생각을 밝혔다.

이에 최민식 역시 "한석규와는 20대부터 서로가 서로를 지켜왔다. 누군가 슬럼프 빠질 수 있고, 누군가 잘 나갈 때도 있다.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이 바닥에서 꾸준히 하고 있구나.



배우 최민식, 한석규(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조선의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한석규 분)과 장영실(최민식 분)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게 5,6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넘어가니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다. 위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허진호 감독은 두 연기와 배우와의 작업에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동시에 시나리오를 드리고, 두 분을 같이 만났다"며 "최민식 한석규는 두 분이 오랫동안 있었고, 나도 한석규와 작업한 지 꽤 오래됐다. 언제 작업 같이 하나, 꼭 같이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촬영이 편했다. 감독이 연기를 보다가 길어지면 컨트롤 하고 잡고 해야하는데 내가 두 분이 하는 연기를 보고 잠시 감독임을 잊고 취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면서 "위나 호흡이 좋으셔서 나에게 말 안 하고 두 분이 호흡을 맞춰 짠 하고 나타나시더라.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밝히기

도 했다.

한석규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신구와 또 한번 만났다. 그는 신구에 대해 "8월의 크리스마스" 때는 어렵기만 했다. 이번에는 덜 어렵더라"며 "격없이 얘기하다 제가 선생님(신구)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형님(최민식)과 저도 꽃으로 치면 지고 있다. 꽃봉오리로 치면 지고 있다고 말하다 혼났다. 정색을 하면서 '야 이놈들이 꽃봉오리로 치면 만개를 하고 지는 건 나지 이놈야 하시더라'고 했다.

이어 "진지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 듣고 마음 속 깊이 동의했다. 맞다. 우리는 이제야 피어났다. 선생님의 비유와 말씀이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면서 배우로서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한편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오는 12월 개봉한다.

'건강 회복' 김우빈, 내달 팬들과 만난다

3년만의 소통

김우빈이 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김우빈은 오는 12월8일 SM타운 씨어터에서 팬들과 만난다. 이날 자리는 김우빈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린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다.

이번 팬미팅은 토크 형식으로 담백하게 진행,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김우빈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예정이다.

앞서 김우빈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40회 청룡영화상에서 청정원 단편영화상을 시상하며 오랜만에 대중에게 얼굴을 비쳤다.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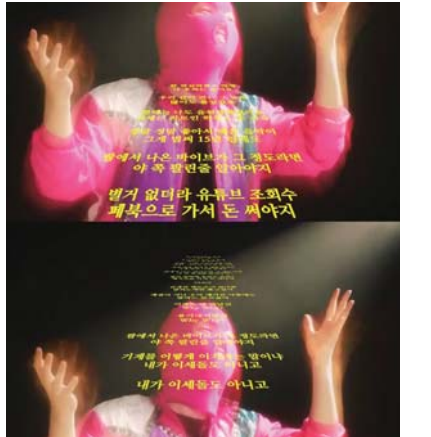
마미손, 음원 사재기 의혹 저격

신곡 '잠에서 나온 바이브' 발표

래퍼 마미손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 의혹'을 언급한 신곡을 내 눈길을 끈다.

27일 마미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음악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신곡 '잠에서 온 바이브' 영상을 공개했다.

이 노래에서 마미손은 '한때는 나도 음원강패였어요 이제 차트인 하루도 못 가요/잠에서 나온 바이브가 그 정도라면 야 쪽 팔린 줄 알아야지/별거 없더라 유튜브 조회수 폐북으로 가서 돈 써야지/천 개의 핸드폰이 있다면 별의 노래만 듣고싶어/계절이 지나 우리 헤어져 여름에도 발라드 듣고싶어/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나 내가 이제들도 아니고"라는 가사로서 음원 사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다뤘다.

뉴스1

바이브 윤민수 아내 "사재기 할 돈 없다..이번엔 정말 고소할 것"

바이브(유재현 윤민수) 윤민수 아내 김민지씨가 "사재기 할 돈도 없으며 이번에는 정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씨는 27일 자신의 SNS에 악플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다. 이는 최근 바이브에 대한 음원 사재기 의혹 논란에 대한 심경으로 보인다.

이 게시물에는 수많은 네티즌이 응원의 댓글을 달았고, 김민지씨가 직접 댓글을 달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민지씨는 "제가 다른건 몰라도 자신있는게 저희 회사는 사재기 할 만큼 돈이 없다"며 "이번에는 정말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앞서 블랙비의 박경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바이브 측은 25일 "당사는 회사를 통해 사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수로부터 전혀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고, 이에 기정사실화 되어 버린 해당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 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이해 "이미 당사 아티스트는 씻을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대를 퍼뜨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온라인 상의 악의적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MEGABOX 광주첨단점

- 1관 나를 찾아줘
- 2관 겨울왕국2
- 3관 크롤, 신의 한 수:귀수편
- 4관 겨울왕국2
- 5관 겨울왕국2
- 6관 나를 찾아줘
- 7관 겨울왕국2, 카센타
- 8관 겨울왕국2
- 9관 블랙머니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 1관 나를 찾아줘, 겨울왕국2, 러브 앳, 신의 한 수:귀수편
- 2관 겨울왕국2, 엔젤 해즈 폴른, 82년생 김지영
- 3관 나를 찾아줘, 겨울왕국2
- 4관 겨울왕국2
- 5관 신의 한 수:귀수편
- 6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러브 앳, 크롤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